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참 생명과 참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빕니다. 저녁 7시부터 부활절 찬양잔치가 있습니다.
- 사순절 연속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다음 주일은 사랑방공동체 설립 4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 42 - 16 호

2025년 4월 2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다함께

강단을 꽃으로 : 정연갑 · 이운순 집사 가정 (부활절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미와 유래는 매우 다양하나 부활절이 되면 달걀을 이웃과 나누거나 달걀에 그림을 그리고 장식을 합니다. 일부 국가에선 부활절 퍼레이드와 축제를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또 부활절이 되면 가족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 편에선 부활절을 맞아 기독교인들에게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부활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와 전쟁이 이슈로 사용하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절 의미를 흐릿하게 하여 하루의 축제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엔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부활에 대한 증거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부활은 거짓이었다. 없었던 일이다.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라는 역사적인 자료가 더 많을까요?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역사적 자료를 모으고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활을 증명하는 것보다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려운 정도라고 말합니다. 먼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일, 십자가형을 선고 받으신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을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아닌 역사적 기록으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로마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타키투스는 '예수가 티베리우스 황제 재위 중에 극형을 당했다'라고 기록했으며,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던 유대인 요세푸스도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처형당했다는 사실과 무덤이 비어있다고 기록한 역사적 기록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유대의 학자들 스스로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야기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하나의 증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적 증거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두 흩어지고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두려움에 떨며 자신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 떨거나 숨어있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후에 다시 모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순교당하기까지 전했던 이 사실이 많은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증거로 삼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세상의 어려움 앞에 모른다 부인하고 숨기 바빴던 제자들 중에 내 모습도 보이진 않았나요? 삶에 두려움과 걱정들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2000년 전이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며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한주간의 말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 누가복음 24장 30-31a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144, 439 / 546

기도 : 정혜정 권사

성경 : 출애굽기 24장

제목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라고 하셨다.
해석: 하나님은 경배 받으실 분이시다. 창조자, 구원자
적용: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배할 자로 부르셨다.
2.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 모세가 없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로 가십시오.
해석: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믿음의 공동체)는 질서가 있다.
적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자.
3.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며 먹고 마셨다.
해석: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실 수 있다. 살 수 있다.
적용: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 은혜의 삶을 누리자.
4. 언약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것이다.
해석: 비교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말 것 주어진 것에 만족, 다른 사람을 돌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적용: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자.

Merry 부활절

작년 어느 날 주일 설교 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가 나왔
다.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는 천사가 성령으로 임신하였다고 하였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다.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가문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아멘이라고 답한 것이다.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순전한 몸과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았
다고 하셨다. 순전한 믿음, 순전하다는 말은 행동이나 태도가 깨끗하
고 정직한 것을 말한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순전
한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동참하
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믿음을 가
진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다. 마리아를 들으면서 설교 중 갑
자기 평 머느리가 눈앞에 나타났다.

우리 집 여인 중에 마리아에 가까이 있는 여인이고 생명을 잉태하
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결혼 후 유산을 하게 되어 아들 부부
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웠고 햇살처럼 밝던 머느리가 웃음을 잃
었는데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속만 끓였는데 지난달 임밍아웃 서
프라이즈를 하였다. 침례교단 130년 역사의 산파이신 조부와 목회자
의 딸인 머느리를 통해 과분하게도 우리 가정에 새 생명도 물론이지
만 많은 은혜도 덤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기대이다. 아내
가 태몽을 꾸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주일 설교에 가정이 폭 빠져 있
던 중이라 태명을 복근이(복의 근원), 오복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난
주 주보 글에 광야를 걷는 중이라 쓰셨던 분의 심정이 동병상련이었
다. 쉬는 날 없이 바쁘게 지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천릿길 광야를
걷는 나그네처럼 나아가고 있었는데 창조의 주께서 생명을 허락하
서 신비롭고, 감사하다. 현재 상황과 현실에 관계없이 초월적, 생명으
로 임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매일매일 귀하다, 저의 자격과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어지는 일방적 은혜이고 말로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다.

성경을 보면 가정이나 개인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과
은혜를 예비하실 때는 사람과 사람, 가문과 가문의 만남을 통해 여
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산의 아픔을 통해 어둠과 슬픔의
긴긴 어려움을 묵묵히 견딘 자에게 주시는 비밀 가운데 하나님은 새
로운 생명의 역사도 시작하신다는 개인적 깨달음이다. 사랑방 창립
41주년을 앞두고 2025년 부활의 은혜는 “신비”와 “생명”이라고 고백
한다.

새싹사랑방 김병우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마태복음 28 : 5-6

160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디모테전서 2 : 5-6

164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 정태일 목사

누가복음 24 : 13-35

주 사셨다, 167

설교자

사랑방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165

171(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채영대 장지영 / 봉헌위원 : 채영대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과 참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고 희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13-16>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들과 동행하였으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17-27> 마을에 가까이 이
르러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28-35>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두 제자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
한 소망을 잃어버렸으나,<21>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았
다.<32>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
되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꾼다.

참 소망으로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지금도 국내외 상황은
혼란과 불안, 그로인한 고통의 삶이 이어진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
신하고 절망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바꾸십시오. 보이지 않는 나라
에 대한 소망을 갖고 어떤 형편에서도 부활의 삶을 힘써 누리십시
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태일 목사 / 기도 : 한호남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독감을 앓느라 엿새 만에 꾸러기차를 만난 ㄷㅇ이가 그새 또 낮을 가리는지 배웅 나온 아빠 뒤로 숨더니 뒷걸음질을 시작합니다. 큰 길 가라서 일단 언니만 꾸러기차를 타고 동생은 아빠가 따로 학교로 데리고 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보다 조금 늦게 학교로 들어서는 ㄷㅇ이에게 ㅎㅇ이가 환하게 웃으며 "보고 싶었어"하고 인사합니다. ㄷㅇ이는 친구가 건네는 그 한 마디에 매우 환한 미소를 보이더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씩씩해졌습니다. ㄷㅇ이와 ㅎㅇ이는 서로 견제를 많이 하고 노는 스타일도 다르지만 마음으로는 서로를 참 많이 의지하나 봅니다.

목요일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서로 발을 씻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들이 꿀꿀이반 친구들을 씻겨주고 발을 씻은 친구들이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발을 맡긴 친구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발을 씻기는 친구는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동생들은 언니가 발을 씻겨주었다며 칭찬하고 싶어 했습니다.

꾸러기 발에 돌아나는 어린 싹을 찾고 얼마나 자랐나 보느라 밖에서 노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월요일 새벽에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렸는데 등교한 친구들이 이상기 후에 대해 저에게 연설을 합니다. 변화무쌍한 날씨에 어리둥절했답니다.

월요일 예배시간 누가복음 23:32~38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정다운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금요일 LTSS 시간에 숙제로 해온 봄 음식의 효능과 요리법과 축

제에 대해 얘기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후 싹을 뜯어서 봉투에 담아서 보냅니다. 싹으로 맛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먹고 사진 찍어 보내기로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번 금요일 봄을 느끼러 국립수목원에 예약을 해 두었어요. 아이들과 쿿바람을 쐬고 뛰어 놀며 행복한 봄이야기 시간을 보내며 돌아오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24일(목)에는 건강검진을 다녀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린이학교 행복한 봄 이야기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꼬르륵, 멋쟁이들의 배가 울립니다.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고난주간 기간에는 오전 금식을하기로 결정했지만, 배고픈 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고난과 금식에 대해 배워가며 일상생활을 유지해나갑니다. 마음을 다해 고난주간을 보냈으니,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심화학습 <국악>은 모듈별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국악의 다양한 종류가 가지는 특색과 예시들을 풍부하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이런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후배들을 선배들이 열심히 이끌어간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도보여행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도보여행 답사를 하고, 토요일에는 강우를 뚫고서 학생회도 함께 그 지역들을 미리 둘러보았습니다. 목요일에는 도보여행 물품들을 점검하고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여행이기에 많은 멋쟁이들이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보여행 여행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저희 집 앞에 예쁜 꽃들을 심었습니다. 꽃을 욕심내서 구입해 즐거운 마음으로 심었는데 몸이 놀랐는지 한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즈음에 심은 이유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과 무림방 어르신들이 교회 마당을 산책하시면서 저희 집 앞을 지나실 때 예쁜 꽃들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셨으면 하는 제 마음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서 2주 동안 연속기도를 했지요. 저는 매년하는 기도시간이지만 이번엔 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습, 그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에 공감을 잘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5월 4일은 제 아들 보람이가 하늘나라로 간 날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이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생각나며 그리워집니다. 고통 없이 잘 살다간 아들을 보낸 내 마음도 생각날 때마다 아린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모진 고통을 겪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나와는 절대 비교할 수 없지만 아주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란 말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만 생각나고, 함께 있고 싶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또 비슷하게라도 닮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주님께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고 살고 있나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참 좋겠습니다. 흑해매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짝사랑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월영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150, 95

성 경 : 사도행전 4:8-13

말 씀 :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위해

< 관세전쟁으로 인한 선교지원의 어려움 >

세계 경제의 위기로 선교후원에 어려움이 되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경제가 안정되고 신앙인들이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부활신앙의 회복>

한국 교회들이 부와 성공을 앞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이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는 참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 * 목요세족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 *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하신 장미숙 권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공동식구들은 고난주간을 보내며 연속기도회에 참여하고 금식과 미디어 절제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런 중 갑작스러운 수술과 손가락 부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파종시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손길의 보탬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 해 귀한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일인 동시에 하나됨을 다지는 좋은 공동작업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